

뮤지컬·클래식·인디까지... 장르 넘나드는 '공연 상차림'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새단장

뮤지컬 '킹키부츠'·'슈퍼 클래식 몬스터' 선봬 선우정아·김수영 콘서트... '단편선 시리즈'도

브로드웨이의 화제작 뮤지컬 '킹키부츠'부터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케빈 주, 선우정아·김수영 등 실력과 아티스트들의 무대까지.

개관 35주년을 맞는 광주예술의전당이 올 상반기 탄탄한 라인업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은 그동안 '포시즌', '포커스', '11시 음악산책' 등 3대 섹션을 중심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여왔다. 올해는 공연의 성격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포시즌을 '그랜드 스테이지', 포커스를 '영 스테이지'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단장했다.

그랜드 스테이지 첫 무대는 뮤지컬 '킹키부츠'다. 오는 4월 4~5일 이틀간 총 4회 펼쳐진다. 작품은 폐업 위기에 놓인 구두공장을 물려받은 청년 찰리와 드래킹 아티스트 플라가 편견을 깨는 신개념 부츠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두 인물의 용기와 연대, 다양성의 메시지를 유쾌한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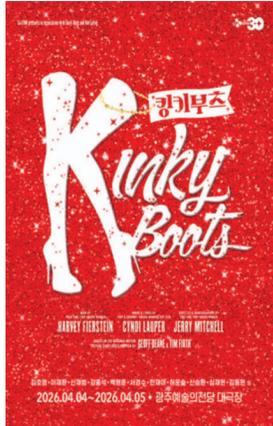
동으로 풀어낸다. 김호영·이재환·신재범(찰리 역), 강홍석·백영훈·서경수(플라 역) 등이 무대에 올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 무대 '슈퍼 클래식 몬스터'는 오는 5월 24일 대극장에서 열린다. 2018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케빈 주가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를 연주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테크닉을 선사한다.

하마마츠·퀸 엘리자베스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일리아라쉬코프스키가 협연자로 나선다.

영 스테이지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무대로 트렌디한 무대로 꾸며진다. 첫 EP 'Marigold'를 발표한 정효빈이 오는 20일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수륙곡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호소력 짙은 감성을 차세대 여성 발라더로서 자리매



김한 그는 수록곡을 중심으로 생동감 있는 라이브를 선보일 전망이다. 이어 5월 22일에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실력과 아티스트 선우정아와 김수영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대로 관객과 깊이있는 교감을 나눈다.

11시 음악산책은 해설과 영상, 연주 등 예술과 음악을 접목한 마티네 콘서트로, 올해는 '단편선' 시리즈가 무대를 채운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단편 문학에 담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시대 배경을 음악

과 미술로 함께 짝어본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콘서트 가이드로 참여해 다채로운 선율의 향연에 해설을 더한다.

오는 31일 공연 '봄봄'은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결핍 속에서도 다시 찾아오는 '봄'의 생명과 희망을 조명한다. 구인회 동인 이상과 김유정의 관계, 김유정의 단편 '봄봄'이 드러내는 농촌 현실의 풍자, 이인성의 그림 '해당화'가 환기하는 봄의 이미지를 당대 흘러나오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여이 만나본다.

오는 4월 28일 무대에 오르는 '목걸이'는 모파상의 동명 단편을 중심으로,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욕망과 체면이 개인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성찰한다. 현실 도피의 심리를 담은 오페라 이리아와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을 통해 허영의 끝에서 마주하는 공허와 상실을 공유한다.

아울러 6월 30일 열린 '귀여운 여인'은 덴마크 화가 크리에어의 '스카겐

해변의 화가와 그의 아내', 안톤 체호프의 단편 '귀여운 여인'을 통해 사랑이 비추는 현실과 이상의 균열, 욕망을 들여다본다.

윤영문 전담장은 "올해는 기획공연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고 관객과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에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전하는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스크린서 만나는 '베니스국제영화제' 화제작

광주영화영상인연대, 15일까지 독립영화관서 경쟁·비경쟁 부문 등 11편... 개막작 9일 상영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베니스국제영화제의 화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026 베니스 인 광주'를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돼 온 베니스 기획전을 지

난해와 더불어 광주에서도 선보이는 자리로, 지역 관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5편, 비경쟁 부문 4편, 베니스 클래식(고전) 부문 2편 등 총 11편이 상영된다.

상영은 평일 저녁 1~2편, 주말 2편씩 진행된다. 개막작은 9일 오후 7시 상영되는 피에트로 마르첼로 감독의 신작 '엘레오노라 두세'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연극배우 엘레오노라 두세의 마지막 여정을 섬세한 영상미로 그려낸 작품이다.

10일에는 '구름 아래', 11일에는 토니 세르빌로가 이탈리아 대통령 역으로 분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라 그라

짜이'가 상영된다. 소렌티노 감독은 '그레이트 뷰티'로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을 수상한 세계적 거장으로,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미장센을 선보인다.

12일에는 '엘리사'와 '브라보 베네!'가 각각 풍격과 폭력적 이미지가 교차하는 파올로 스트라폴리 감독의 '홀리보이', 무성영화와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 작품 '오르페오'가 스크린을 채운다.

주말 상영 역시 눈길을 끈다. 14일에는 길거리에서 캐스팅한 비전문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호평받은 라우라 사미니 감독의 '그해, 학교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하드보일드 갱스터 영화 '죽이는 건 지겹다: 암살자의 자서전'이 이어진다. 15일에는 '망령의 복수'와 1960년대 이탈리아 황금기를 대표하는 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우고 토나치가 출

연한 안토니오 피에트라팔레 감독의 고전 '위대한 바람둥이'로 막을 내린다.

이번 기획전은 단순 상영을 넘어 광주와 해외 문화도시를 잇는 영화 교류의 연장선에 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대안영화교역소'를 기치로 웨베, 파리 등과의 영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주한케네디문화대표부와 함께 매년 6월 '웨베내셔널데이'를 개최하며 광주와 웨베 간의 문화적 접점을 확장해 왔다.

2025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파리 귀스타프 에펠 대학과 협력해 파리에서 최초로 5·18 사진전을 갖고, 광주 제작 독립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역사와 예술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

'2026 베니스 인 광주'는 이같은 국제

협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베니스와 광주를 영화로 연결함으로써 세계 주요 문화도시와의 교류를 확장하고 도시 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2025 베니스 인 광주'와 '사후 50주년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특별전'에 이어 이탈리아문화원과 세 번째로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광주와 이탈리아를 잇는 지속적인 문화 협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한편, 행사는 베니스비엔날레재단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서울아트시네마 등이 후원한다. 상영작 가운데 '홀리보이'를 제외한 10편에는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예매는 무비예를 통해 가능하다. 입장료는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수필 현대문학 이론 지평 확장 '창작수필' 통권 제3호 발간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이사장 오덕렬)가 발간하는 번외간지 '한국창작수필' 2026년 봄·여름호(통권 제3호)가 출간됐다. '한국창작수필'은 "현대문학 이론이 말하면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를 문학적선으로 '창작수필'의 이론 정립과 창작적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3호에는 권두사에 오소후씨의 '월 정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수록, 광주·경주 PEN위원회 교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조망했다. 권두언에는 오덕렬 이사장의 창작수필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한 내용이 실렸다. 이어 김병욱 평론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성격'은 플랫폼에 대한 세 번째 연재이며, 이경은씨의 수필극 '둘'은 박기욱의 동명 수필을 원작으로 재구성했다. 오 이사장은 피천득 '오월'을 통해 '창작수필'의 전범을 제시했고, 이관희씨는 '이것이 현대문학 이론의 정론이다' 등으로 수필의 이론적 기반과 확장 가능성을 탐색했다.

'한국창작수필' 2호에 대한 박옥주씨의 비평을 수록해 자성의 장을 마련했으며, '제1회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 작가상' 수상자인 탁인석씨(전 광주문협 회장)의 문학적 성취를 조명했다. 또 탁인석 윤종일 김학부 정희자 정소영씨의 신작 수필과 이근도 노창수 오덕렬씨 등의 이야기 방언시를 통해 '수필사'이자 '이야기 방언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3회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윤옥현씨의 '소리 너머 소리', 강선희씨의 '불안 이 가로등', '글웃'을 선정했고, '이것저것 놀이'라는 창작 5단계를 통해 A=B 형식의 은유 작법을 제시하며, 형상적인 소재인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 '창작수필'의 창작 원리도 다뤘다.

특별기획에서는 '우리말샘'에 복한어로만 등재된 어휘의 낯한 사용 사례를 제시하며 언어주권 문제를 다뤘고, '한강 노벨문학상, 100문 100답' 연재를 통해 한강문학의 숨은 플랫폼과 표현을 분석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관념적 산수 대신 생생한 풍광 작품에 투영 남포미술관, 건백 추현철 작품전 31일까지

전남 고흥 소재 남포미술관은 건백 추현철 작가의 제9회 개인전을 지난 1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갖는다. 4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추 작가는 한국 전통 수묵화의 깊은 정취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들을 출품, 산수화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담체 기법의 섬세한 색채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은 '산사의 봄 전경', '자연에 묻다' 등 70여점.

작가는 산에서 시작해 산으로 생활하는 작가로, 실경산수를 담아내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수묵산수는 단순한 외관 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담아내는 화풍을 보여주는 한편, 관념적 산수에 머무르지 않고, 산행을 통해 얻은 생생한 풍광을 작품 속에 녹여내며 자연과의 교감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수묵 중심의 작업에서 점차 담채 기법을 더해 자연의 조화를 유지

하면서도 색채를 통해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자연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는 시도로 풀이된다.

추현철 작가는 "이번 전시는 산수와 자연을 향한 제 오랜 탐구의 결과물"이라며 "수묵과 담채가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건백 추현철 작가는 고흥 출생으로 홍익대 대학원 등에서 공부했으며, 2009년 일곱번째 작품전을 남포미술관에서 연 바 있다. 5년전 고흥으로 낙향해 화실을 운영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산사의 봄 전경'